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최 윤 정*

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와 자살생각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조절변수로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들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스트레스, 자살생각, 보호요인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문제제기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자살자수가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평균 260명이라고 보고하고 있고, 교육과학부에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3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대학생 사망원인 2위가 자살로 보고되고 있다. Taliaferro, Rienzo, Morgon Pigg Ju, Miller and Dodd(2009)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8세에서 24세까지의 학생이 자살로 죽는 인원이 연 1,100명으로 예측되고 있고, 자살계획을 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미국 대학생의 수가 대략적으로 연간 24,000명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Kisch et al.(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1.5%이고, 자살을 진지하게 고려한 경우가 9.5%라고 보고하였다(Soni에서 재인용, 2010).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청년들의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갑자기 많아진 자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모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스펙 쌓기 열풍에 의한 과도한 압박감, 8%가 넘는 실업률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은 청소년기 후기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초기성인기 동안에 높은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는 것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일으키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Fergusson, Woodward & Horwood, 2000). 젊은이들에 대한 자살과 자살시도 논문에서 자살시도나 자살 전에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과 역경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자살에 의해 죽은 젊은이들의 2/3이상이 스트레스적인 사건들에 노출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Beautrais, 2003).

초기성인기는 자살시도, 진지한 자살생각, 완벽한 자살의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Brezo et al., 2006). Cole, Pratsinsky and Cross(1992)은 자살은 자살생각에서 시작해서 자살시도, 완전한 자살에 이르는 연속체의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Wichstrom(2000)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들은 뒤이어 일어나는 자살시도를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했다(Fergusson et al.에서 재인용, 2000). Barrios, Everett, Simon and Brener(2000)은 젊은이들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지라도 이러한 연속체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될 수 있을 것이다.

상호거래적 이론에서는 환경이 개인의 안녕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적일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이은희, 이주희, 2001 재인용). 많은 연구자들은 젊은이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이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의 위험한 전조라고 언급하고 있다(Dixon, Heppne & Anderson, 1991; Wilburn & Smith, 2005; Fergusson et al., 2000; 박병금, 2009; 우채영, 박아정, 정현희, 2010). Joiner와 Rudd(1995)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의해 생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심리적으로 취약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살증상들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많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이 자살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노출된 모든 대학생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William(1997)은 스트레스 유발인자의 존재가 자살위험의 필수적 조건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실패나 거절을 암시하는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각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유상미, 이승연에서 재인용, 2008). 이러한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내·외적인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응적으로 생활하고 행동하는 대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고위험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 바로 보호요인이다. 보호요인이란 부적응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위협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조절하고 개선하는 요인이다(Rutter, 1987). 보호요인은 보상효과와 완충효과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상효과는 위협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이며, 완충효과는 위협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위협요인이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Fraser, Richman & Galinsky, 1999). 따라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요인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을 검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알아보고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으로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해 줄 수 있는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방향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가?

셋째,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II. 문헌검토

1.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살의 개념은 포괄적이어서 자살생각, 자살 시도, 자살행위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Harwood & Jacoby, 2000). 따라서 자살생각은 자살행위의 연속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Garlow et al.(2008)은 자살생각은 최후에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몇몇의 연구들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25%에서 58%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7%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제시하였다(Brezo et al., 2007). 선행연구들에서 자살생각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미래 자살 시도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Rudd, Joiner & Rajab, 1996; D'Eramo, Prinstein, Freeman, Grapentine & Spirto, 2004). Simons와 Murphy(1985)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에 대한 생각도 후에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살예측의 중요한 지표는 자살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보다는 자살에 대한 생각 그 자체가 있는지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다.

Selye(1974)는 스트레스를 개인의 항상성을 붕괴하는 자극에 대한 인간 신체 반응으로서 정의하였다. 이들 반응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내적 균형을 유지

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되고, 개인의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경험을 스트레스라고 지각한다(Rice, 1992). Lazarus(1993)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범위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하였다.

현대의 대학생들은 작은 좌절에도 정서적으로 취약해지고 자해행동을 하기도 하는 등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살을 선택한다고 하였다(김정진에서 재인용, 2009).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함으로써 대학생들 사이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우채영 외, 2010; Calderon, 1995; Fergusson et al., 2000; Wilburn & Smith, 2005). Baumeister(1990)은 자살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스트레스, 즉 기대하는 상황과 현실 상황과의 괴리와 그 스트레스들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가 합쳐져 나타난다고 하였다(김현순, 김병석에서 재인용, 2008). Dixon et al.(1991)은 자살행동을 삶의 요구에 대처하지 못한 결과 즉,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고,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적 대처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였다(Fergusson et al., 2000; 우채영 외, 2010).

King et al.(2001)은 스트레스가 자살시도들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고, Calderon (1995)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 하였고, Wilson et al.(1995)은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자살 시도 몇 주 전 혹은 몇 달 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Brezo et al.(2006)은 현재 스트레스 요인들이 자살시도보다 자살생각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하였고,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가질 위험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occo, Meneghel, Caon, Dello Buono, De Leo,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보호요인

보호요인들은 위협요인이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이다(Garmezy, 1991). 대학생 자살생각은 개인이 가진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차이를 보임으로 개인과 환경의 맥락에 의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Garmezy (1994)와 Werner(1986)는 생태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보호요인을 3가지 요소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개인의 기질적 요소, 둘째는 가정적 요소, 셋째는 외부의 지지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대학생 자살생각에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외부 환경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인 보호요인 중에서 선행연구들에서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아존중감의 보호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서 그들이 중요한 타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의해 형성된다(Wilburn & Smith, 2005). 그러므로 환경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의 질은 개인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은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킨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면(Young, Rathge, Mullis & Mullis, 1990),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살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ukes & Lorch, 1989). Tolan과 Cohler (1993)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시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Calderon에서 재인용, 1995), 미래의 자살시도의 강한 예측인자가 낮은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다(Peter, Prusoff & John, 1994). 이숙(2003)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차영자(2008)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으며,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Wilburn과 Smith(200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조절해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순규(2008)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임을 확인하였고, 박경(2004)의 연구에서도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정적인 보호요인으로는 가족응집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족응집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이다(Olson & Portner, 1983).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고 배운다. 가족구성원과 가깝다고 인식하는 경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가족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술, 약물, 자살과 같은 부적응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Johns, 2009). Gould와 Kramer(2001)는 드물고 불만족스러운 의사소통, 낮은 응집력, 높은 갈등, 지지와 따뜻함의 결핍과 같은 낮은 수준의 가족애착은 자살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Galvin과 Brommel(1986)은 가족응집력 수준이 적절히 높은 경우 가족기능이 원활하고 개인이 최적의 발전을 이루고, 상황적 스트레스와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Johns(2009)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가족기능이 높은 경우 자살생각을 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영자(2008)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가족응집력이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김효정과 정미애(2010)도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Tweed와 Ryff(1996)은 높은 위험에 있는 자녀도 긍정적인 가족경험을 하는 것이 보호요인이 되고 특히, 가족응집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지지적인 가족 관계망의 존재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며(Chance, Kaslow, Summerville & Wood, 1998), 가족의 친밀감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강력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O'Donnell, O'Donnell, Wardlaw & Stueve, 2004).

외부지지체계의 보호요인으로 학교애착과 사회적적지지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낮은 수준의 학교애착, 학업문제와 잦은 결석과 같은 학교 어려움은 자살생각과 자살행동들과 관련됨이 발견되었다(Lyon et al., 2000). Kandel, Raveis and Davies (1991)는 긍정적인 학교경험의 결핍이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으며, 학교 안에 잘 통합되어 생활하는 학생보다 통합되지 못한 학생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유(1999)는 부적절한 친구관계,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만족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고, 정혜경, 안옥희와 김경희(2003)는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충동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김순규, 2008),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2007), 학교에 잘 적응할수록(전영주, 2001) 자살의 위험이 적어진다고 하였다. Fergusson, Beautrais and Horwood(2003)는 성공적인 학교경험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포함하는 자살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적인 보호요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사회적지지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건강한 정신건강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믿을 만한 성인들과 같은 안정적인 체계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Calderon, 1995). 사회적지지는 자살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사망률과 질병률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다(Brown & Vinokur, 2003). Howard-Pitney, Lafmboise, Basil, September and Johnson(1992)은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과 역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자살시도들과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김선아, 2009). 사회적지지는 부정적 생활사건에 의해 고통이 증가되는 것을 극적으로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Smith, Smoll & Ptacek, 1990), 만성적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킨다(Dumont & Provost, 1999). Brezo et al.(2005)은 대학생 자살생각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고, 자살결과와 자살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적절한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를 완충해주며(Sandler & Lakey, 1982), 자살행동의 위험을 감소시킨다(Resnick et al., 1997). Rudd(1990)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임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360명이다. 표집절차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의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4년제 대학생으로 국한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지리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구분해 놓은 구를 하나의 층으로 선택하여 5개 구를 선정하였다. 대전광역시는 5개 구 중에 한 개 구에 4년제 대학이 존재하지 않아 4곳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총 360부를 설문조사하였고 본 연구의 조사 자료로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표 1과 같다. 종속변수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이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74)등에 의해 구조화된 자살생각 척도(SSD)를 신민섭(1990)등에 의해 자기보고형 설문지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수인 스트레스는 Frank와 Zyznaski(1988)가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를 배종면, 정은경과 유태우(1992)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BEPSI-K를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없다”부터 “언제나 항상”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 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SE)를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매우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족응집력은 Olson 등이 개발한 FACES-III를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부터 “거의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학교애착척도는 서혜석(2006)이 박현선(1998)과 유윤희(1994)가 제시한 학교태도에 대한 문항 중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애착과 관련된 문항을 수정한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는 Zimet, Dehlem, Zime and Farly(1988)이 고안한 다차원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변수와 신뢰도

변수명	문항수	신뢰도(α)
자살생각	19	.902
스트레스	5	.816
자아존중감	10	.804
가족응집력	10	.831
학교애착	8	.758
사회적지지	12	.941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 검토작업(data cleaning)을 진행한 후 SPSS 18.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t검증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을 센터링하고 센터링한 변인들을 서로 곱해서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항을 위계적으로 회귀시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60)

항 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61	46.1
	여	188	53.9
학년	1학년	47	13.1
	2학년	69	19.2
	3학년	161	44.7
	4학년	72	20.0
가족구조	친부모	283	78.6
	한부모	32	8.9
	계부모	14	3.9
	기타	19	5.3
경제적 상태	수급권	23	6.6
	차상위	34	9.7
	저소득	60	17.2
	일반	223	63.9
	기타	9	2.6

성별로는 여자 188명(53.9%), 남자 161명(46.13%)으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다소 많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재학 47명(13.1%), 2학년 재학 69명(19.2%), 3학년 재학 161명(44.7%), 4학년 재학 72(20%)로 나타나서 3학년 재학생이 다소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구조는 양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288명(78.6%)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조의 결손이 있는 경우인 한부모 가족이 32명(8.9%), 계부모 가족이 14명(3.9%), 기타 15명(4.2%)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대학생이 친부모와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경제적 상태는 일반가정이 223명(63.9%)로 과반수를 넘었고, 저소득층이 60명(17.2%), 차상위 계층이 34명(9.7%), 수급권자가 23명(6.6%)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주요 특성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녀 간에 자살생각 관련 요인들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관련 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스트레스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생각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 보다 자살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Perkins & Hartless, 2002). 보호요인의 성별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이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이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에서 남자 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자이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자 대학생이 좀 더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이존중감, 학교애착, 가족응집력은 남자 대학생이 높게 나타나 여자 대학생이 자살의 위험이 좀 더 높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표 3
성별에 따른 특성 차이

요인	남자 대학생(n=161)		여자대학생(n=188)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2.46	.70	2.49	.65	-.36
자이존중감	2.96	.44	2.83	.39	2.92**
가족응집력	3.33	.67	3.17	.76	2.74*
학교애착	2.80	.49	2.67	.45	1.50*
사회적지지	3.94	.82	3.98	.68	-.43
자살생각	.19	.26	.25	.31	-2.10*

*p < .05 **p < .01 ***p < .001

3.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 요인이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요인이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살생각에 관한 회귀모형의 F값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VIF계수가 2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으며, 잔차의 독립성에도 d통계치가 2.172로 나타나 문제가 없었다.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 요인이 대학생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정도는 24.6%로 나타났다.

표 4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 요인이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 인	자살생각	
	β	t
스트레스	.308	5.977***
자아존중감	-.195	-3.527***
가족응집력	.060	1.114
학교애착	-.057	-1.126
사회적지지	-.153	-2.800**
R^2	.257	
수정된 R^2	.246	
F	24.458***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스트레스($\beta = .308$), 자아존중감($\beta = -.195$), 사회적지지($\beta = -.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높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낮으면 자살생각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이 30.8%에 이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스트레스가 대학생

의 자살생각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우채영 외, 2010; Calderon, 1995; Fergusson et al., 2000; Wilburn & Smith, 2005)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Wilburn & Smith, 2005). 대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제시한 연구(Dukes & Lorch, 1989)들과 같이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 자살생각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제시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Brown & Vinokur, 2003).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가족응집력(차영자, 2008; Jones, 2009)과 학교애착(김순규, 2008; 이정숙 외, 2007; 전영주, 2001)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 결과,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스트레스가 높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대학생의 자살생각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4.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자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서 완충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학교애착, 사회적지지는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보상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표 5와 같이 주효과($\beta = -.205$)와 상호작용효과

($\beta = -.156$)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이 자살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보상효과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켜 주는 역할도 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을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김순규, 2008; 박경, 2004; Wilburn & Smith, 2005)와 같은 결과이다.

표 5
자살생각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요 인		β	t
1단계	스트레스	.339	6.723***
	자아존중감	-.237	-4.702***
2단계	스트레스	.329	6.595***
	자아존중감	-.205	-4.039***
	스트레스×자아존중감	-.156	-3.328***
R ²		.259	
수정된 R ²		.253	
R ² 변화량		.023**	
F		41.471***	

*p <.05, **p <.01, ***p <.001

둘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가족응집력의 조절효과는 표 6과 같다. 가족응집력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효과($\beta = .16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 가족응집력이 높으면 자살생각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응집력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선행연구(Chance et al., 1998; O'Donnell et al., 2004; Tweed & Ryff,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6
자살생각에 대한 가족응집력의 조절효과

요 인		β	t
1단계	스트레스	.415	8.373***
	가족응집력	-.073	-1.481
2단계	스트레스	.414	8.492***
	가족응집력	-.071	-1.450
	스트레스×가족응집력	-.160	-3.395***
R ²		.219	
수정된 R ²		.212	
R ² 변화량		0.26***	
F		33.016***	

*p <.05, **p <.01, ***p <.001

셋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학교애착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표 7과 같이 주효과($\beta = -.172$)와 상호작용효과($\beta = -.167$)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7
자살생각에 대한 학교애착의 조절효과

요 인		β	t
1단계	스트레스	.403	8.300***
	학교애착	-.141	-2.906**
2단계	스트레스	.419	8.728***
	학교애착	-.172	-3.536***
	스트레스×학교애착	-.167	-3.489***
R ²		.234	
수정된 R ²		.227	
R ² 변화량		.026***	
F		35.932***	

*p <.05, **p <.01, ***p <.001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이 자살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학교애착이 높으면 자살생각을 경감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학교애착은 직접적인 영향도 주고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애착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Fergusson et al.,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표 8과 같이 주효과($\beta = -.193$)와 상호작용효과($\beta = -.156$)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8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요 인		β	t
1단계	스트레스	.370	7.421***
	사회적지지	-.189	-3.793***
2단계	스트레스	.361	7.329***
	사회적지지	-.193	-3.923***
	스트레스×사회적지지	-.156	-3.378***
R ²		.245	
수정된 R ²		.238	
R ² 변화량		0.24***	
F		38.123***	

*p <.05, **p <.01, ***p <.001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이 자살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자살생각을 경감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사회적지지는 직접적인 영향도 주고,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사회적지지가 보호요인을 할 것이라는 선행연구(Brezo et al., 2006; Rudd, 1990; Sandler & Lakey, 1982)와 같은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학교애착, 사회적지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보호요인

으로서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력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완충효과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강화되면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고, 대학생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에,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면 자살생각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 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 관련 요인들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스트레스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살생각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관련 요인들의 성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사회적 지지를 제외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이 통계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본 결과,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스트레스($\beta = .308$), 자아존중감($\beta = -.195$), 사회적 지지($\beta = -.153$)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보호 요인들로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를 검증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모두 조절변수로 검증되었다. 즉, 스트레

스가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가 완충해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와 개입의 방향성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30.8%로 나타나,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자살과 같은 잘못된 해결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기술과, 대처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자살생각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liaferro, Reinzo, Morgon Pigg Ju, Miller and Dodd(2008)은 신체활동이 정서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운동은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녕을 통해 자살생각을 막는 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동아리나 친목모임 등을 통해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경감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 에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가족응집력은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가족응집력은 가족구성원과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lson과 Portner(1983)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균형적으로 가족체계를 움직이게 하며,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돕는 반면, 비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축소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가족구성원이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

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법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 학교애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학교애착은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교우관계, 학업성취 등이 만족스러울 때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상담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등을 관리해주고, 교수와의 상담시간을 확보하여, 관계향상을 증진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진로 지도를 통해 대학생들 경험하는 어려움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멘토링제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것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교애착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까지는 초, 중, 고등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담시스템이 개발되었다면, 앞으로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상담시스템을 개발하여 좀 더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시키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Garlow et al.(2008)은 우울이나 자살생각을 가진 대학생들이 정신 치료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제시하였고, 대학 내 정신건강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을 다룰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센터를 개소하고 대학생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개발하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대학생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의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자살의 위험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가들은 개입을 할 때, 강점관점에 근거한 사정을 통해서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보호요인들 즉, 개인적 성향, 가족환경, 가족 외적 사회환경 등 다체계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개입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자살생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의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검증하였다. 여러 보호요인들 중에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거나, 위험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조절효과를 해 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보호요인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은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 되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표집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아 (2009). 초등학교시기의 심리사회요인과 중학생 시기의 자살생각간의 관계: 스트레스, 우울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3), 5-27.
-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66-98.
-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자살시도경험,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413-437.
- 김현순, 김병석 (2008).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01-219.
- 김효정, 정미애 (2010).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43-50.
- 박 경 (2004). 청소년의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자존감, 무망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79-80.
- 박병금 (2009). 청소년 우울의 발달경로와 자살생각.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1(4), 207-235.
- 우선유 (1999).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채영, 박아정, 정현희 (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9-38.
- 유상미, 이승연 (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애착유형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5(2), 119-136.
- 이 숙 (2003). 청소년기 여고생의 자살위험성, 자아존중감 및 자아기능 강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2), 155-163.
- 이은희, 이주희 (2001).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6(1), 145-175.
- 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6(1), 32-40.

- 전영주 (2001). 우울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 환경의 경로 분석 모델. **대한 가정학회지**, 39(1), 151-167.
- 정혜경, 안옥희, 김경희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2), 107-126.
- 차영자 (2008). **청소년의 자살생각 예측모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rrios, L. C., Everett, S. A., Simon, T. R., & Brenner, N. D. (2000). Suicide ideation among us college students: Associations with other injury risk behavior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5), 229-233.
- Beautrais, A. L. (2003). Life course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s in young people.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9), 1137-1156.
- Brezo, J., Paris, J., Tremblay, R., Vitaro, F., Zoccolillo, M., & Hebert, M. et al. (2006). Personality traits as correlates of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ults. *Psychological medicine*, 36, 191-202.
- Brezo, J., Paris, J., Tremblay, R., Vitaro, F., Hebert, M., & Turecki, G. (2007). Identifying correlates of suicidal attempts and suicidal ideators: A population-based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37, 1551-1562.
- Brown, S. L., & Vinokur, A. D. (2003). The interplay among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The role of depression, poor health, and loved one's messages of support and criticism.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131-141.
- Calderon. (1995). *Ethnic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A comparison of White,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inpatient subjects*. Caribbean center for advanced studies.
- Chance, S. E., Kaslow, N. J., Summerville, M. B., & Wood, K. (1998). Suicidal behaviors in African American individual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ultural diversity and mental health*, 4, 19-37.
- Cole, E. C., Protinsky, H. O., & Cross, L. H. (1992). An investigation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dolescence*, 27(108), 813-818.
- D' Eramo, K. S., Prinstein, M. J., Freeman, J., Grapentine, W. L., & Spirito, A.

- (2004). Psychiatric diagnoses and comorbidity in relation to suicidal behavior among psychiatrically hospitalized adolesc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5*, 21-35.
- Dixon, W. A., Heppner, P. P., & Anderson, W. P. (1991). Problem-solving appraisal, stres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51-56.
- Dukes, N. L., & Lorch, B. (1989). The effect of school, family, self-concept and deviant behavior on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adolescence, 12*, 239-251.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 Fergusson, D. M., Woodward, L. J., & Horwood, L. J. (2000). Risk factors and lif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suicidal behaviour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medicine, 30*, 23-39.
- Fergusson, D. M., Beautrais, A. L., Horwood, L. J. (2003). Vulnerability and resiliency to suicidal behaviors in young people. *Psychological medicine, 31*, 61-73.
- Fraser, M. W., Richman, J. M., & Galinsky, M. J. (1999).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3), 131-143.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2th ed.).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Garlow, S. J., Rosenberh, J., Moore, J. D., Hass, A. P., Koestner, B. K., & Hendin, H. et al. (2008). Depression, despera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Results from the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college screening project at emory university. *Depression and anxiety, 25*, 482-488.
- Garnezy, N. (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416-430.

- Garmeszy, N. (1994).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uld, M. S., & Kramer, R. A. (2001). Youth suicide preven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1*, 6-31.
- Harwood, D., & Jacoby, R. (2000). *Suicidal behavior among the elderly*. John Wiley & Sons, Ltd.
- Howard- Pitney, B., LaFromboise, T. D., Basil, M., September, B., & Johnson, M. (1992). Psychological and social indicators of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in Zuni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0*, 473-476.
- Joiner, T. E Jr., & Rudd, (1995). Negative attributional style for interpersonal events and the occurrence of severe interpersonal disruptions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297-304.
- Johns, E. S. (2009). *Teaching problem-solving to improve family function and to decrease suicidality*. Florida: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 Kandel, D. B., Raveis, V. H.,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90.
- King, R. A., Schwab-Stone, M., Fisher, A. J., Greenwald, S., Kramer, R. A., & Goodman, S. H. et al. (2001). Psycho-social and risk behavior correlates of youth suicide attempts and suicide ide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7)*, 837-846.
- Lazarus, R. (1993). Why we should think of stress as a subset of emotions. *Hand 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Free Press.
- Lyon, M. E., Benoit, M., O' Donnell, R. M., Gelson, P. R., Silber, T., & Walsh, T. (2000). Assessi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a' risk for suicide attempt: Attachment theory. *Adolescence, 35*, 121-134.
- O' Donnell, L., O' Donnell, C. O., Wardlaw, D. M., & Stueve, A. (2004). Risk

- and resiliency factors influencing suicidality among urban african and latino you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 37-49.
- Olson, D. H., & Portner, J. (1983).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 Perkins, D. F., & Hartless, G. (2002). An ecological risk-factor examination of suicide ideation and behavior of adolesc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7(1), 3-26.
- Peter, M. L., Prusoff, B. A., & John, B. S. (1994).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future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2), 297-305.
- Resnick, M. D., Bearman, P. S., Blum, W. R., Bauman, K. E., Harris, K. M., & Jones, J. et al. (1997). Protecting adolescents from harm: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 823-832.
- Rice, P. L. (1992). *Stress and health*. Pacific Grove, CA: Brooks.
- Rudd, M. D. (1990).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e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 16-30.
- Rudd, M. D., Joiner, T., & Rajab, M. H. (1996). Relationship among suicide ideators, attempters, and multiple attempters in a young-adult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541-550.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andler, I. N., & Lakey, B. (1982). Locus of control as a stress moderator: The role of control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1), 65-80.
- Scocco, P., Meneghel, G., Caon, F., Dello Buono, M., & De Leo, D. (2001). Death ideation and its correlates: Surve of an over-65-year-old popul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9(4), 210-218.
- Selye, H. (1974). *Stress without distress*. New York: Lippincott and Crowell.

- Simons, R. L., & Murphy, P. I. (1985). Sex difference in the cause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 16-30.
- Smith, R. E., Smoll, F. L., & Ptacek, J. T.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PsycSca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360-370.
- Soni, A.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c and suicidality among adolescents*. Alder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Taliaferro, L. A., Rienzo, B. A., Morgon Pigg Ju, R., Miller, M. D., & Dodd, V. J. (2008). Associations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reduced rates of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7*(4), 427-435.
- Taliaferro, L. A., Rienzo, B. A., Morgon Pigg Ju, R., Miller, M. D., & Dodd, V. J. (2009). Spiritual well-be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8*(1), 83-90.
- Tweed, S. H., & Ryff, C. D. (1996). Family climat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Recollections from a nonclinical sample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 father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9*, 311-321.
- Werner, E. (1986).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18.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7*(1), 34-40.
- Wilbum, V. R., & Smith, D. E. (2005). Stress,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in late, *Adolescence, 40*(157), 33-46.
- Wilson, K. G., Stelzer, J., Bergman, J. N., Kral, M. J., Inayatullah, N., & Elliott, C. A. (1995). Problem solving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1*(2). 237-244.
- Young, G., Rathge, R., Mullis, R., & Mullis, A. (1990). Adolescent stress and self-esteem. *Adolescence, 25*(98), 333-341.

ABSTRACT

Stress, suicidal ideation, and protective factors in college students

Choi, Youn-Ju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tress on suicidal ideation as it pertains to college students, as well as to better underst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family cohesion, school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upon both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T-tes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ress was found to negatively impact upon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Second, bo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ere very clearly powerful factors in the alleviation of such suicidal ideation. Finally, self-esteem, family cohesion, school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created a buffer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possible reasons for these result were identified and discussed in the conclusion.

Key Words : stress, suicidal ideation, protective factors

투고일 : 6월 11일, 심사일 : 7월 20일, 심사완료일 : 8월 10일

* Mokwon University